

개인주제 프로젝트 **ebook**

영화 시나리오 써보기

도비

이번 모듈 진행한 나의 주제는 ‘영화 시나리오 써보기’이다. 이 주제를 선택한 이유는 내가 너무나 아름다운 예술인 영화를 사랑하기 때문이고, 저번 모듈에도 똑같은 마음으로 이 주제를 진행했지만 목표를 달성해내지 못했기 때문에 미련이 많이 남아서 다시 한번 시도해 보기로 결정했다. 저번 모듈에는 시나리오를 쓰다 영화에 대한 근본적인 궁금증이 많이 생겨서 책을 읽고 생각해보는 활동을 주로 했다면 이번 모듈에는 정말 시나리오를 쓰기 위한 노력을 했고, 내 기준에서 어느 정도 마음에 드는 시나리오가 완성이 되었다. 내가 쓴 시나리오 한 편에 대해 자세하게 설명하는 것과 더불어 시나리오를 어떻게 썼는지에 대한 그 간의 과정을 서술하려다 보니 내용이 많이 길어졌다. 읽기 귀찮으실 수도 있으니까.. 그냥 편한 마음으로 적당히 읽어주시길 바랍니다.. 호호

시나리오로 써보고 싶은 주제는 분명히 있었다. 그것이 무엇인지 임팩트 있게 천천히 얘기하고 싶지만 맨 처음 말하고 넘어가야 앞으로 나올 이야기들의 이해가 가능할 거라고 생각한다. 나의 아이디어를 이렇게 맥 없이 푸송하고 공개해버리는 것이 이 세상에서 나만 아쉽겠지만 그래도 얘기해보자면 나는 한겨울 느껴지는 겨울 냄새를 좋아한다. 하지만 영화도 그렇고 겨울냄새도 그렇고 내가 좋아하는 모든 것들은 나 혼자만 있을 때 좋아할 수 있다. 누군가와 같이 있을 때는 사람이 옆에 있다는 사실 자체가 너무 스트레스라 내가 좋아하는 무언가를 좋아할 수가 없다! 그래서 항상 그 좋아하는 것들을 하기 위해서 혼자였는데 사실 나도 사람인지라 외롭다. 사람과 같이 있는게 스트레스긴 하지만 그래도 사람이 필요하다. 아마 모두가 공감할 마음이라 생각했다. 이런 나의 경험, 그리고 감정을 바탕으로 시나리오를 적었다.

이 시나리오의 주인공은 은둔형 외톨이이고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 (잔인한 요소는 없으니 안심하세요. 잠깐 짐작할 수 있는 요소만 넣었습니다.) 태어나자마자 자살을 생각하는 사람은 없는 것 처럼 내 시나리오의 주인공도 그랬겠지만 시나리오에서는 주인공이 왜, 어떻게 이런 생각을 하게되었는지에 대한 과정은 생략했다. 그 과정이 간단하지도 않을 것이고 처음 시나리오를 써보는 내가 표현하기엔 너무 어렵다고 생각했다. 설득력 없이 애매한 감정을 전달할 바엔 시나리오를 읽는 사람들이 상상하거나 예측할 수 있도록 아예 서술하지 않는 편이 낫다고 생각했다. 어쨌든 주인공의 상태를 이어서 말하자면 나 처럼 겨울 냄새를 좋아하고 사람들을 불편해 한다. 타고난 성격 때문에 생각은 너무 많은데 누군가와 그 생각들을 나누어 본 경험이 거의 없는 사람이다.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혼자 느끼는 것처럼 말이다. 그런 상황이 여러가지 합쳐져 우울해진 사람이라고 생각하면 될 것이다. 무슨 말인지 전혀 이해가 되지 않는 분들은 그냥 ‘친구 없어서 극도로 우울해진 애!’라고 이해하시면 될 거 같다. 너무 심한 말 같지만 맞는 말인 걸 어떡해..

이런 상태였던 주인공이 어느 날 동기부여를 받고 충동적으로 자신이 좋아하던 겨울 냄새를 맡기 위해 여행을 떠나고 그 여행에서 어떤 정체모를 사람을 만나게 된다. 하지만 만나게 된 그 사람은 사실 가짜이고 실존하지 않는 사람인데 주인공이 자신을 봐주었으면 하는 사람을 너무 필요로 하고, 사람을 너무 그리워해서 그런 사람을 하나 만들어냈다는 스토리이다. 결국 마지막엔 주인공도 그 사람이 자신이 만들어 낸 사람임을 깨닫고 자신이 사람을 만들어 낸 이유, 그러니까 사람을 그리워하고 원한다는 자신의 밑바닥에 있던 감정을 마주본다. 이 감정을 인정하게 된 주인공이 다시 사람과의 관계를 시작해보려 한다는 그런 내용의 시나리오이다. 앞으로 중요 장면 하나하나 자세한 설명을 하며 넘어갈 예정이니 지금은 이해 못하셔도 된다. 이 ebook을 다 읽고서도 이해가 안되신다면 그냥 나를 불러주시길 바란다. ^~^

마지막으로 ‘지 얘기를 뭐하려고 영화 시나리오로 써..’라고 생각하실 분들이 계실 수도 있을 텐데.. 나도 내 얘기로 영화 시나리오까지 만드는게 조금 부끄럽고 괜히 티 내는 거 같아 민망하긴 하지만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가 바로 이 부분이기 때문에 어쩔 수 없다. 내가 영화를 좋아하는 이유는 내 감정을 다른 사람들과 나눌 수 있기 때문이다. 또한, 영화라는 분야는 전체적으로 현실 세계에 기반 후, 어느 정도 적당한 픽션이 가미되어야 사람들이 납득할 수 있다. 그렇기에 영화로 만드는 내용이나 소재에 대한 경험은 아주 아주 필수적이고, 그래서 자신이 직접 경험한, 그러니까 자신의 이야기에 기반한 영화는 관객들에게 가장 현실적이고 가장 적나라한 감정을 전달 할 수 있다. 때문에 영화의 주인공이 자신이 되는 것은 아주 아주 흔하고.. 대부분 그렇다고 책에서 읽었다. ^^ 그러니까 그냥 그러려니 하고 넘어가주시길 바랍니다..

딱 한마디만 더 하겠다... 주인공의 이름은 ‘무 명’이다. 외자이다. 별로인가? 추천받는다. 받아들일지는 모른다. 이름이랑 정 붙어서. 그리고 앞서 말했던 그 실존하지 않는, 정체 모를 사람은 작 중에서 계속 ‘그 사람’이라고 칭해진다. 이름이 없다. 못지은 거 아니고 안지은 거다. 명심해라.

영화의 시작

영화는 겨울 아침에 침대에서 힘겹게 일어나는 무명이의 방에서 시작된다. 무명이는 여느 학생처럼 머리를 감고, 교복을 입고, 가방을 매고 학교에 등교한다. 다른 학생들과 조금 다르다는 점은 깨끗한 책상 위에 커터칼이 올려져있는 점이다. 학교에 등교한 무명이가 수업을 듣는 중에 이 이야기가 시작될 수 있도록 무명이의 마음을 흔드는 동기부여 장면이 시작된다.

썸 3, 4 / 동기부여 장면

이 장면에 대해 고민을 정말 많이 했다. 이 장면으로 인해 영화가 시작되고 무명이의 여행이 시작되기 때문에 강렬하진 않더라도 설득력이 있어야 했다. 정말 무명이의 마음을 바꿀 만한 무언가가 있어야 했다. 그래서 내가 만든 장면은 다음과 같다.

무명이는 수업 시간에 수업을 듣지 않고 창밖을 내다보고 있다. 창문 밖으로 놀이터 그네에 앉아 신나게 그네를 타는 한 아이를 무명이는 보게 된다. 날씨는 춥고 나무들은 앙상하지만 그와 대조되게 햇살과 아이의 얼굴은 밝다. 그 아이의 표정에서 무명이는 행복과 자유를 보게 된다. 무명이는 그 장면을 멍하니 바라보고만 있다 갑자기, 자신이 자살을 생각하고 있다는 사실이라는 사실을 생각하기도 전에 행복을 원하기 시작한다. 자신도 저 아이처럼 저렇게 웃고 싶어진다. 그 욕망은 자신이 옛날부터 좋아했던 겨울 냄새를 맡는 것으로 이어지고 망설임 없이 창밖을 바라보며 깊게 숨을 들이마신다. 하지만 겨울 냄새가 나지 않자 그 때 환상이 깨지고 순식간에 우울이 밀려온다. 정신을 차린 듯한 무명이가 뻘뻘하게 자신의 옆에 앉아있는 자신과 같은 학생들을 바라본다. 자신을 불편하게 만드는 그 사람들 때문에 겨울 냄새가 맡아지지 않는 거라고 무명은 생각한다. 그리고 겨울 냄새를 맡는 것을, 그러니까 행복을 느끼려고 노력하는 것을 순식간에 아주 빨리 순식간에 포기해 버린다.

S#3 학교 교실 / 오후

무명이는 창가에 앉아 창 밖을 내다보고 있고 선생님은 수업을 하고 계신다.

담임선생님 : (귀찮다는 듯이) 사실 이 단원은 공식만 잘 외우면 어떤 문제든 다 풀 수 있어.
책에 있는 공식 까먹지 말고 잘 외워둬.

(잠시 책을 들여다 보다가) 그래도 일단 문제 하나 정돈 풀어줄게.

x^2+3x+4 의 두 근을 찾아라.. 자 이걸 그냥 인수분해 하면 되는 거 알겠지?

무명이는 계속 밖을 바라본다. 나무는 앙상하게 서 있고 보기만 해도 추워 보인다.

놀이터에서 그네를 신나게 타고 있는 꼬마 아이가 보인다.

그 아이를 보고 무명이는 잠시 고민하다 숨을 크게 쉬어본다.

하지만 겨울 냄새가 나지 않는다.

고개를 돌려서 빼곡히 앉아있는 같은 반 친구들을 보는 무명. 잠시 바라본다.

그러다 그냥 자신이 한심하다는 듯이 옆드려 버린다.

(종소리)

담임선생님 : 자 오늘은 여기까지만 하자. 야자 빠지지 마라~

그리고 그 날 저녁 학교에 앉아서 야자를 하고 있는 무명이의 머릿속엔 계속 그 아이의 얼굴과 책상 위에 놓인 커터칼이 번갈아가며 생각난다. 난 어차피 죽을텐데 자꾸 그 행복함이 생각난 다라는 감정을 전달하고 싶었다. 생각이 끊이지 않자, 무명은 순식간에 바다(겨울냄새가 잘 나는 곳)로 가는 기차를 예매하고 더 얼굴을 구긴채 책상에 옆드려버린다.

S#4 학교 야자실 / 밤
무명이가 야자를 하고 있다.
책에 무언가를 끄적이다가 그냥 옆드려 버린다.

(Over Lap)
낮에 보았던 꼬마 아이가 생각난다.
책상에 있던 커터칼이 생각난다.

짜증 나는 듯이 눈을 감고 얼굴을 찡그린다. 계속 생각이 난다.
그러다 마침내 휴대폰을 꺼내 기차를 예약한다.

(Close Up)
화면에 표가 예약되었다는 글자가 보인다.

무명이는 겁나고 기쁘다는 듯이 애매한 표정을 짓는다.
지친 듯이 책을 책상 위에 쌓기 시작한다. 그리고는 머리를 기대 잠을 잔다.

원래는 다른 장면이었는데 설득력이 부족한 거 같아서 중간에 새로 구성된 장면이다. 중간에 새로 바꾸는 것이 조금 힘들긴 하지만 그만큼 동기부여가 설득력이 있어야 하고, 중요하다고 생각했다. 이유 없이 행동하는 사람은 없으니까 말이다.

썸 7 / 무명과 그 사람의 첫 만남

이 썸 바로 전 썸부터 해서 쪽 무명의 태도나 말투에 변화가 생기는데 어떤 사람은 ‘캐릭터 붕괴’라고 느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은 일부러 의도한 것이다. 무명이 스스로는 자각하지 못 했을 테지만, 답답했던 학교를 떠나 자신이 좋아하는 것을 느끼러 간다는 상황 자체가 무명이를 조금 누그러트렸을 거라고 생각했다. 그냥 기분 좋게 만들었을 거라고 생각했다. 조금 더 동심으로 돌아가고, 조금 더 우울에서 벗어나는 걸 도왔을 거라고 생각해 일부러 말투에 변화를 주었다. ‘저 녀석 방금까지 우울하던 애 맞아~!’ 라고 생각하실 수도 있는 분들에게 미리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또 하나 말할게 있는데, 여기서부터 영화 전체에 판타지적 요소가 많이 가미된다. 무명과 그 사람의 마음이 통하고, 무언가 설명이 필요한 부분을 설명 없이 넘어간다. 그 이유는, 그 사람을 만났다는 거 자체가 판타지고, 무명의 허상이다라는 것을 표현하기 위해서이다. 그래서 계속 읽다보면 너무 현실에서 불가능한 얘기를 한다고 느끼실 수도 있는데 정확히 맞다. 실존하지 않는 사람과 이야기를 하고 같이 시간을 보내는 것은 판타지이고, 무명이만의 허상이니까 말이다.

이제 무명과 그 사람의 첫 만남에 대해 자세히 이야기를 하려고 한다. 두 사람은 무명이 예매한 기차를 타고 떠난 바다에서 처음 만나게 된다.

S#7 기차역, 바다 / 밤

기차가 서고 문이 열린다. 사람들 틈 사이로 무명이 나온다.
바로 앞에 바다가 보인다. 무명은 크게 숨을 쉬고 밝게 웃으며 바다 쪽으로 걷는다.
시선은 계속 바다로 고정된 채 계단을 내려간다. 바다는 잔잔하고 검다.
모래 위를 걷다 털썩 앉아버린다. 다시 숨을 크게 쉬며 밝게 웃는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 번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다.
가방을 벗어 옆에 두고 모래사장에 누워버린다.
밤하늘에 떠 있는 별이 보인다. 별이 아주 많다.
무명은 한참을 누워있다.

무명 : (웃으며) 좋다...

그 사람 : 그렇죠? 참 좋죠.

무명이 놀란 듯이 후다닥 일어나 앉는다. 그 사람을 뻘뻘 쳐다본다.
검정색 코트를 입은 단발머리의 사람이 앞에 서 있다.

그 사람 : (바다 쪽을 보며) 별이 참 많네요. 겨울 냄새도 진하고.

무명 : (당황하며) 네..?

그 사람 : (다시 무명을 보며) 겨울 냄새 맡으러 온 거 아니에요?

무명 : 네.. 맞긴 한데요..

그 사람 : (무명이 옆에 앉으며) 저도 겨울 냄새 맡으러 왔어요.

무명 : (살짝 거리를 두며) 아... 네....

그 사람은 다시 바다 쪽을 쳐다본다. 무명도 다시 앞 쪽을 본다.
무명은 어색한 듯이 계속 그 사람을 곁눈질한다.

무명 : (결심한 듯이) 음.. 언제 가세요?

그 사람 : 왜요?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무명 : (손사레를 치며 황급히) 아니요 아니요...

그냥.. 혼자 있는 게 편해서요. 어.. (손가락으로 가리키며) 제가 가도 상관없어요.

그 사람 : 근데 집에 안 돌아가도 돼요? 밤이잖아요.

무명 : (당황한 듯 잠시 있다가) 언젠간.. 돌아가야겠죠..?

(열게 웃으며) 근데 일단.. 오늘은 아니에요. 겨울 냄새 맡으러 또 가볼 곳이 있거든요.

그 사람 : 미성년자 아니에요?

무명 : (고개를 끄덕이며) 네, 맞아요.

그 사람 : (가웃하며) 미자가 숙소를 혼자 잡을 수는 없을텐데?

무명 : 아, 숙소에서 안 잘 거예요.

(뿌듯한 듯이) 여기에서 잘 거예요. 바다 앞에서요.

그 사람 : 추울텐데, 입 돌..

무명 : (말을 끊고) 입 돌아갈까요?

그 사람 : 네, 죽을 수도 있을 걸요.

무명 : (웃으며) 괜찮아욤 ㅎㅎㅎ

그 사람 : (잠시 있다가) 그래요 뭐, 저도 꽤 낭만적이라고 생각했어요.

무명 : (안 믿긴다듯이 놀라며) 정말요?

그 사람 : (당연하다는 듯이) 네, 멋지잖아요. 낭만적이고..

(잠시 있다가) 영화 속에서만 일어나는 일이잖아요, 그렇지?

무명이 잠시 멈칫한다. 하지만 곧 고개를 끄덕인다.

무명 : (손바닥으로 가리키며) 어디서 자실 건데요?

그 사람 : 저는 뭐 이제.. 숙소를 잡아야죠.

무명 : 아..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죠..

그 사람 : 여기 말고 겨울 냄새가 또 나는 곳은 어디예요?

무명 : (조금 당황스러운 듯이, 하지만 물어줘서 신나는 것처럼 조금씩 제스처도 취해가며)

음.. 일단 여기랑.. 그 강원도에 엄청 큰 발이 있어요.

그 발에서 쥐불놀이 하면서 모닥불을 피우면요, 겨울 냄새가 나요.

어릴 때 갔던 곳인데 기억에 많이 남아요.

(긴장이 조금 풀린 듯이 웃으며) 그리고 마지막은 집 앞 놀이터인데요,
거기에서 그네 타면서 발을 위로 쪽 뻗으면 겨울 냄새가 불어와요. 거기도 좋아요.

(쓱스러운 듯이) 물론, 바로 집 앞이지만.. ㅎㅎ

그 사람 : 되게.. 좋을 거 같네요.

무명 : (열게 웃으며) 네.. 맞아요.

잠시 정적이 흐르고 파도 소리만 들린다.
겨울 냄새는 여전히 불어온다.

그 사람 : 그럼.. 주무세요. 저는 이제 추워서 들어가봐야 될 거 같아요.
무명 : (다시 상황을 깨달은 듯이) 아, 네.. (고개를 숙이며) 안녕히 가세요.

그 사람이 일어나 천천히 걸어간다.
무명은 다시 혼자 바다를 바라본다. 하지만 왜인지 조금 아쉬운 마음이 든다.

무명이 도착한 바다에는 아무도 없었고 그러자 무명은 들어누워 겨울 냄새를 한가득 맡기 시작한다. 혼자, 좋아하는 장소에서 맡은 겨울 냄새는 무명에게 아주 질게 다가왔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렇게 겨울 냄새를 맡다 그 사람이 불쑥 나타나고 그 사람은 무명이 만들어 낸 사람이기 때문에(물론 이 때의 무명은 그것을 모르지만) 무명에 대해 모든 것을 알고 있다. 그래서 이 첫 대화에서 그 사람은 무명이 누군가와 공유하고 싶었던 것에 대해 질문을 하고 무명은 의심스럽고 아직은 불편하지만 자신에게 이런 것을 물어주는 누군가가 있다는 사실 자체에 너무 설레어해서 의심은 쉽게 접어버린다. 그리고 자신의 생각을 처음으로 아주 다는 아니지만 조금은 공유하고 이해받는다. 그리고 나서 둘은 헤어지고 무명은 처음으로 사람과 헤어지는 것에 대해 아쉬운 마음이 든다. 또한, 처음으로 사람과 같이 있으면서 겨울 냄새를 맡을 수 있었다. 이것은 나중에 한 번 더 언급이 된다.

나는 이 장면에서 이런 의문을 품었다. ‘그간엔 사람들에게 자신의 생각을 전달하는 것이 너무나 어려워 우울해진 사람이 너무 쉽게, 그것도 처음 보는 모르는 사람에게 마음의 문을 연 게 아닐까.’ 하지만 이 때 무명의 욕망은 오로지 ‘자신의 말을 들어줄 사람’이었다. 자신이 말하고 싶은 것에 대해 대놓고 물어봐주고 답변을 진심어린 눈으로 들어주는 사람이 바로 제 옆에 있다면 의심의 벽은 쉽게 무너졌을 거라고 생각한다. 일단 자신의 근본적인 욕구를 충족하는 것이다. 그리고 하나 더, 나도 아직 확실하지 않은 하나의 가능성에 대해서 잠깐 말해보자면 무명이 그 사람을 자신이 만들어 낸 사람이라고까지는 생각하지 못해도 실존하는 사람이 아닌, 허구의 사람이라는 것은 그 때 이미 조금은 짐작하고 있었을지도 모르겠다. 그래서 자살까지 생각하게 된 너무 낯고 지친 무명이 더 이상의 의심은 하고 싶지도 않고 할 힘도 남지 않아서 그냥 생각은 다 생략하고 마음을 털어 놓았을 수도 있을 것이라 생각한다. 어차피 자신의 욕망을 채워주면 그걸로 된 것이니까 말이다. 음.. 사실 이 생각은 나도 아직 조금 헛갈린다. 그리고 이 두 가지가 섞인 감정을 느꼈을 수도 있다. 사람이 하나의 감정만 느끼는 건 아닐테니까 말이다. 확실하지 않다. 머리가 좀 아파서.. 나중에 더 생각해보겠다.

대화가 끝난 후 두 사람이 헤어질 때, 무명이가 아쉬움을 느끼는 감정에 대해선 너무나 쉽게 설명할 수 있다.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준 사람, 자신이 함께할 때 편했던 사람과 같이 있는 시간을 늘리고 싶은 것은 너무나 당연한 일이다. 우리 모두가 그렇다.

썸 9 / 같이 가자고 말 하는 그 사람

뭐.. 다들 예상하겠지만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그래야 이야기가 진행되니까 말이다. (두 사람이 다시 만나게 된 상황엔 앞서 말한 약간의 판타지적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 그리고 무명이에겐 겨울 냄새를 맡으러 가고 싶은 다른 여러가지 장소가 있었는데 숙소에서 그 사람이 무명이에겐 다른 곳에는 자신과 함께 가자고 제안하고 무명이는 좋다고 한다.

무명은 그 사람과 얘기를 하며 먼저 (속으로만) 그 사람과 함께 겨울 냄새를 맡으러 가는 것을 원했고 그 사람은 무명이 만들어 낸 사람이기에 무명의 속마음 또한 알고 있었다. 그렇기에 원하는 것을 말하지 못하는 무명이에겐 그 사람이 먼저 무명이 원하는 것을 제시했다. 무명이는 이 사람이 어떻게 나의 속마음을 알지 의심하기 보단, 자신의 마음이 이루어졌다는 그 자체가 너무 기뻐 그 제안을 수락한다. 이 장면은 나중에 다시 오버랩된다.

아 그리고 말이다.. 좀 얘기하기 민망한;; 설정이 있는데.. 이 장면에서 둘이 이야기를 하며 술을 마신다.. 어 그러니까 물론 그 사람은 성인이지만 무명이는 19.9999살 상태이다. 그러니까 아직은 무명이가 술을 마시는게 불법이란 소리다. 하지만.. 어.. 이건 영화니까.. 그냥 이해 부탁드립니다. 아니아니! 이걸 보시는 선생님들은.. 내가, 그러니까 이 십팔살 된지 얼마 되지 않은 이 머리에 피도 안마른 친구가.. 영화 주인공들이 함께 술을 마시는 장면을 썼다는 것에 대해 어떻게 받아들일지는 잘 모르겠지만.. 그리고 미래의 나도 지금의 내가 이러한 장면을 썼다는 것을 엄청나게 수치스럽게 생각할테지만 뭐.. 지금의 나는 대략 만족하니까 뭐.. 그냥.. 속으로 마음껏 비웃어주시면서 넘겨주시길 바랍니다. 언급하지 말아주세요. 얼굴이 빨개질겁니다. 민망하니까 이 부분은 대본을 넣지 않겠다.

이렇게 되어 두 사람은 함께 겨울 냄새를 맡으러 가게 된다.

썸 11 / 기차에서

둘은 같이 떠나기 위해 기차에 탄다. 그리고 놀랍겠지만 두 사람은 아직 통성명을 하지 않았다. 그리고 이 기차에서, 서로를 마주보고 앉아 처음으로 자신들의 이름을 말한다. 무명이는 자신이 무명이라고 말하고 그 사람은 자신이 이름이 없다고 말한다. 이 세상에 이름이 없는 사람이 있을 수가 없는데, 그 사람은 이름이 없다. 하지만 무명은 이제 의심할 생각조차 하지 않는다. 이름 없는 (자신이 만들어 낸) 그 사람을 온전히 받아들인다.

또한 함께 시간을 보내는 장면을 이어서 빠르게 보여준다. 밥을 함께 먹고, 기차에서 함께 내리고, 함께 예쁜 것을 보며 웃는다.

S#11 기차 / 아침

두 사람이 기차에 타 있다. 무명이는 기분이 좋은지 계속 웃는 얼굴이다.

그 사람 : (귀엽다는 듯이) 왜 그렇게 계속 웃고 있어요?

무명 : 알 ㅎㅎ, 그냥 기분이 좋아서요.

(잠시 있다가 다시 바라보고) 근데 제가 뭐라고 부르면 좋을까요?

계속 이렇게 이름을 모를 수는 없잖아요.

그 사람 : (고민하다가) 이름이.. 없어요. 원하는 대로 불러요.

무명 : 아.. (놀란 걸 티 내지 않으려 한다.)

(황급히) 저는 무명이에요. 명이라 부르셔도 되고 무명이라 부르셔도 돼요.

그 사람 : 예쁘네요.

무명이는 부끄러운 듯이 미소 짓는다.

음식을 파는 카트가 들어온다.

그 사람 : 배고파요?

무명 : (고민하며) 어.. 네.. 조금요..

근데 먹을 게 없...

그 사람 : (말을 끊고 문 쪽을 턱으로 가리키며) 저기.

(Montage)

그 사람과 무명이 도시락을 함께 먹는다.

기차에서 내려 신나게 얘기를 하며 걷는다. 무명이는 끊임없이 말을 한다.

가게에 들어가서 구경을 하고 맛있는 것들을 함께 먹는다.

둘이 함께 예쁘게 노는 모습은 내가 제일 좋아하는 장면 중 하나이다. 그리고 초반부터 생각해 오던 장면 중 하나였다. 책에서 읽었는데 보통 이렇게 영화의 쉬어가는 단계, 잠깐의 '성공'을 누리는 때가 예고편에 나온다고 한다. 만약 내 시나리오가 정말 영화로 만들어진다면 아마 이 장면이 영화의 예고편에 들어가지 않을까 생각해본다. 이 장면의 색감이 정말 예뻐요 좋겠다. 진짜 마법세계에 온 것처럼 건물 하나하나와 인물 하나하나가 빛나고, 맑고, 예쁘게 웃었으면 좋겠다.

썸 13 / 발에서

무명이가 겨울 냄새를 맡으러 바다 다음으로 가고 싶던 장소는 바로 강원도의 어느 발이다. 이 발은 명확한 장소가 정해진 단 하나의 공간인데 그 이유는 잠시 후에 설명하겠다. 무명이는 이 발에서 그 사람에게 자신의 깊은 속마음까지 모두 다 털어놓는다. 자신이 여행을 떠나온 이유, 그 이유가 어떻게 만들어졌는지, 겨울냄새를 좋아하는 이유, 등등 모두 다 털어놓는다. 그리고 무명이의 마음을 다 이해하는 듯한(실제로도 그렇지만) 그 사람의 한 마디에 위로 받고 치유받는다.

S#13 발 / 밤 (Fade In)

눈은 계속 내리고 있고 바닥에 조금 쌓였다.
빛나는 강통 하나가 내리는 눈 사이로 하늘을 날아간다.
그러다 바닥에 딱 소리를 내며 떨어진다.
무명과 그 사람이 강통을 따라 시선을 옮기다가 서로를 바라본다.

그 사람 : (웃으며 대단하다는 듯이) 되게 잘 던지네요.
무명 : (신나는 듯이) ㅎㅎ 예전에는 저렇게 멀리 안 갔었는데.
(바닥에 앉으며) 원래 이런 거 던지면서 소원 비는 거예요. 알아요?
그 사람 : (따라 앉으며) 그래요? 뭐 빌었는데요?
무명 : 당연히 비밀이죠! 원래 말하면 안 이루어져요 ㅎㅎ.

잠시 하늘을 바라본다.
그러다 그 사람을 한 번 힐끗 바라보고는 기지개를 쭉 피며 뒤로 누워버린다.

무명 : 처음 만났을 땐 이렇게 둘이 있는 게 엄청 불편했는데.
지금은 편해요. 신기하죠.
그 사람 : (여전히 앉아서 웃으며) 다행이네요.

무명이가 그 사람의 등을 콕 찌른다.
그 사람이 돌아보자 환하게 웃으며 누우라는 듯이 자신의 옆을 두드린다.
그 사람이 환하게 웃으며 눕는다.
까맣고 반짝이는 하늘이 보인다.
별들이 아주 많다.
밤하늘은 아주 광활하고 아주 넓어서 막연한 느낌을 준다.

무명 : (밤하늘에 눈을 고정시키고) 저는 생각이 참 많아요.

그 사람 : 그래요?

무명 : 네, 쓸데없이 너무 많아요.

그리고 다 이상해서.. 아무도 이해 못 할 거예요.

다 너무 복잡하고 너무 별나서.. 모든 사람이 싫어할 거예요.

그러다 어느 날 보니 그냥 혼자가 됐어요.

(잠시 있다가) 근데 혼자가 나아요.

누구랑 같이 있으면 정말.. 머리가 생각으로 터져 버릴지도 모르거든요.

그래서 겨울 냄새 맡는 게 좋아요.

(숨을 크게 한 번 쉬고) 이렇게 맡고 있으면 머리가 비워지는 느낌이에요.

좀 그만 생각해도 된다고 허락해주는 느낌이에요.

그 사람 : 주로 어떤 생각을 하세요?

무명 : 음.. 사람에 대한 생각도 하고.. 미래에 대한 생각도 하고.. 어둠에 대한 생각도 하고...

(웃으며 손가락으로 달을 가리키고) 그리고 저어기 달나라에 대한 생각도 좀 하고요.

커다란 달이 보인다.

그 사람 : 달에서도 무명씨를 생각할 거예요.

무명 :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며) 네?

그 사람 : (무명과 눈을 맞추며)

무명씨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구요.

(잠시 있다 웃으며) 무명씨 혼자가 아니에요.

무명의 눈에서 눈물이 한 방울 흘러내린다.

서로를 계속 쳐다보다가 무명이는 떨쳐내려는 듯이 고개를 돌리고 다시 하늘을 본다.

잠시 후, 누워있던 몸을 일으켜 앉는다.

무명 :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높은 목소리로)

근데요, 정말 달에 토끼가 살까요?

그 사람 : 음.. 산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명 : (당연하다는 듯이) 네! 산타 할아버지는 당연히 있죠!

그 사람 : (웃는 표정으로 무명이를 바라보며)

그럼 토끼라고 왜 없겠어요?

무명이와 그 사람이 웃는다.

달은 계속 환하게 빛난다.

이 장면에 나오는 눈 발이 왜 장소가 명확하게 지어진 곳인지 설명하자면, 이 곳은 내가 직접 가 본 곳이기 때문이다. 어릴 때 집 앞에 있는 태권도장을 다녔는데, 태권도장에선 겨울이 되면 스키캠프를 떠났다. 많은 사람이 간 것은 아니었고 사범님 한 분과 내 또래 친구들 다섯명 정도 갔다. 우리가 머무는 곳은 강원도에 있는 사범님 어머니의 집이었는데 그 집 앞에 있는 발이다. 스키를 타고 온 날 저녁엔 항상 쥐불놀이를 했다. 추수가 끝난 밭에 불꽃을 넣은 강통을 높게 집어던지곤 했다. 불꽃을 키우기 위해 머리 위로 뱅뱅 돌리다가 옷을 태워먹은 적도 있다. 그리고 던질 땐 항상 소원을 빌었다. 경험담에서 나온 스토리이다. 어릴 때 갔던 그곳은 그 때 당시엔 자각하지 못했지만 겨울 냄새가 제일 짙었을 것이다. 이 때의 경험과 감각들은 아직도 나에게 남아있다. 그래서 영화에 꼭 똑같은 장소를 넣고 싶었다. 지금은 사범님과 연락조차 하지 못하는게 현실이지만 말이다. :)

무명이가 이 때 그 사람에게 자신의 속마음을 다 털어놓는 것은 굉장히 많은 의미를 갖고 있다고 생각한다. 자신의 생각을 나누는 것을 그렇게 어려워하고 힘들어하던 사람이 묻지도 않은 자신의 생각에 대해 누군가에게 먼저 생각을 털어놓았다는 점, 이것을 통해 길다고 말 할 순 없는 그 시간을 통해 그 사람과 무명이 얼마나 깊은 유대감을 쌓았는지 알 수 있다. 그래서 난 어쩌면, 깊은 마음을 털어놓을 수 있는 상대는 꼭 오랜 시간을 함께 해온 이가 아닐 수도 있다는 생각을 한다. 또, 이 때의 무명이는 마음을 털어 놓아야만 할 거 같아서 털어놓은 것이 아니라, 정말 털어놓고 싶어서 털어놓았다. 당연히 그렇다고 생각하는 분이 있을 수도 있겠지만 난 가끔 별로 얘기하고 싶지 않은데 분위기가 그래야만 할 것 같아서 얘기한 적이 몇 번 있었다. 하지만 이 때의 무명이는 그렇지 않았기에, 자신의 마음을 더 솔직하고, 더 담백하게 전달할 수 있었다.

그리고 사실 이 장면에 대사들은 정말 내가 좋아하는 말들이다. 그러니까, 맨 처음부터 생각해 놓고 있었던 대사들이었다. 이 장면에선 꼭 이런 말을 했으면 좋겠다고 내가 점 찍어둔 대사들이었다. 그래서 그냥 보통의 대사들은 하루만 지나고 다시 봐도 마음에 안들고, 어쩔 이렇게 최악이지라는 생각이 들지만 이 대사들은 그런 생각이 들지 않는다. 솔직히 말하자면, ‘참... 잘 썼네.’ 라는 부끄러운 생각이 든다. 물론 다른 사람이 보면 아닐 수도 있고, 미래의 내가 지금의 나를 기억할 때, 나를 원망할 수도 있지만 지금의 나는 충분히 만족한다. 아 참 잘 썼단 말이야. 내가 좋아하는 대사는 바로 이 부분이다.

그 사람 : 달에서도 무명씨를 생각할 거예요.

무명 : (놀라서 그 사람을 쳐다보며) 네?

그 사람 : (무명과 눈을 맞추며)

무명씨 혼자 생각하고 있는 게 아니고, 서로 생각하고 있을 거라구요.

(잠시 있다 웃으며) 무명씨 혼자가 아니에요.

달에 대해 생각한다는 무명이의 말을 잘 알아들어준 그 사람이 그에 맞는 답변을 해준 덕분에 무명이가 위로를 받을 수 있었다. 내 생각에 달에 대해 생각한다는 무명이의 마음은 ‘끝없는 어둠과 막연함 속에 홀로 서있는 자신이 바라는 단 한 가지의 희망이나 작은 빛’ 같은 거였을 거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또 하나 좋아하는 대사가 있는데 그 부분은 바로 아래와 같다.

무명 : (분위기를 바꾸려는 듯이 높은 목소리로)

근데요, 정말 달에 토끼가 살까요?

그 사람 : 음.. 산타가 있다고 생각해요?

무명 : (당연하다는 듯이) 네! 산타 할아버지는 당연히 있죠!

그 사람 : (웃는 표정으로 무명이를 바라보며)

그럼 토끼라고 왜 없겠어요?

이 글을 읽으시는 분이 달에 사는 토끼와 산타 할아버지를 안 믿으실 수도 있겠지만 나는 믿는다. 그러니까! 내 등장인물도 믿는다! 하지만 올해는 산타가 오지 않았는데 그 이유는 내가 바라는게 없어서이기도 하고, 내가 선물을 받는 대신 다른 어린 아이들이 선물을 받는 것에 대해 더 이상 질투를 느끼지 않기 때문이라고 생각한다. 난 나름 성장해서 너그러워졌다.

썸 14 / 진실을 밝히는 그 사람

강원도에 있는 발 다음으로 무명이 겨울 냄새를 맡기 위해 가고 싶어 했던 곳은 바로 자신의 집 앞 놀이터이다. 무명과 그 사람은 놀이터에 앉아 또다시 겨울 냄새를 맡고 그 사람은 이 장면에서, 그러니까 무명이 그 사람에 대한 애정도가 탑을 찍었을 때 그 사람은 자신이 존재하지 않는 사람인 무명이가 만들어 낸 허구의 사람임을 밝힌다. 무명이는 충격받고 부정하는 무명이에게 그 사람은 하나 둘씩 자신과 같이 있으면서 일어났던 판타지적 요소들과 이상한 점들을 말해준다. 무명의 마음이 궁지에 몰리자 무명은 집으로 도망친다.

S#14 놀이터 / 밤

무명은 그네를 타고 있다. 옆자리엔 그 사람이 앉아있다.

무명 : (그네를 신나게 타며) 저기여~!~!

그 사람 : (무명이를 눈으로 쫓으며) 네?

무명 : 이렇게 그네 타면 ~!~! 겨울 냄새 대박이에요~!~! 힐힐히

계속 웃으면서 그네를 타다 바닥에 발을 끌어 멈춘다.

무명 : 저 쓸데없이 높은 아파트만 아니었다면 하늘이 더 잘 보였을 텐데요. 그렇지?

그 사람 : (웃으며) 그렇네요.

그 사람을 보고 있다가 고개를 꺾어 하늘을 본다.

하늘은 아주 까맣다. 달은 안개 때문에 희미하게 떠 있다.

무명 : 좋당...
(잠시 눈치를 보다) 저 그냥.. 돌아가지 말까요?
영원히.. 겨울 냄새가 불어왔으면 좋겠어요.
영원히.. 당신이랑 놀러다니고 싶어요.

정적이 흐른다.

그 사람 : 제가 먼저 할 말이 있어요.
무명 : (조금 민망한 듯이) 음.. 뭔데요?
그 사람 : 물론 믿기 어렵겠지만.. 그래도.. 꼭 해야해요.
무명 : (그 사람을 바라보다)
그 사람 : (망설이지만 단호하게) 그러니까.. 전 실존하는 사람이 아니에요.
무명씨가 만들어 낸 사람이에요.
무명 : (잘못 들었다는 듯이) 네..?
그 사람 : 믿기 어려울 거라는 거 알아요. 하지만.. 사실이에요.
무명 : 갑자기 그게 무슨 소리에요..
그 사람 : (무명을 똑바로 바라보며)
겨울 냄새는 혼자 있어야 말아진다고 했잖아요.
근데.. 나랑 같이 있어도 계속 냄새를 맡았잖아요.
무명 : 당신이 편해져서 그런 거죠!
그건 혼자가 아니라 마음이 중요한 거예요!
그 사람 : 처음 만난 날에도 맡았잖아요.

(Flash Back)

무명과 그 사람이 처음 만났던 순간을 떠올린다.

무명 : ㅇ.. 아니
그 사람 : 그리고.. 내가 마치 당신 생각을 다 알고 있는 거 같지 않았어요?
무명 : (눈동자가 심하게 흔들린다.)
그 사람 : 그리고 난.. (무명을 쳐다보며) 이름도 없잖아요.

정적이 흐른다.

그 사람 : 무명씨가 저를 만들어냈어요.

무명이 그네에서 벌떡 일어난다.
잠시 서 있다 마구 뛰어간다.

그 사람을 원하고 그 사람을 좋아한다는 사실이 확실해졌을 때, 그 사람은 무명에게 이별을 얘기한다. 다른 이유도 아닌, 자신이 실제 존재하는 사람이 아니라는 아주 말도 안되는 이유로 말이다. 그 말도 안되는 이유에 맞서 여러가지 반박을 해보지만 사실은 진짜 그 말이 맞는 거 같다. 아마 이 장면에서 무명은 그 사람과 대화를 하면 할수록, 깊은 늪에 빠져드는 기분이었을 거 같다. 그곳이 늪이 아니라고 마지막까지 발악하다 늪임을 깨닫는 순간엔 이미 온 몸이 빠져있었기에 발을 빼내볼 시도조차 하지 못하고 늪에 잠식되고 마는 거 같다. 아마 이 영화 장면 중에서 가장 마음 아프고 슬픈, 힘든 순간이 아닐 까 생각한다.

그리고 하나만 더 얘기하자면 자신과 말하던 사람이 자신이 실체가 아니라고 말한다면 흔한 보통의 사람들은 믿지 않거나, 믿는다고 해도 무서운 마음이 먼저 들 것이다. 하지만 여기에서 무명은 놀라기보단 그 사람의 말을 아니라고 부정하기 바쁜데, 이런 반응으로 봐선 내가 앞쪽에서 말한 내용이 맞을지도 모른다. 무명이 그 사람이 실제로 존재하지 않는 허구의 사람이라는 것을 깨달았을지도 모른다는 것. 처음에는 착이었고, 그 다음부터 확신이었지만 무명은 자신의 욕구를 충족시켜주고 자신을 채워줄 수 있는 이 사람이 너무나 좋고 더 이상 예전으로 돌아가고 싶지 않아서 그 사실을 외면해 온 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그 사람은 이제 무명에게 그 사실을 더 이상 외면하지 말라고 얘기하는 것이다.

씬 19 / 인정하는 무명

무명은 그 사람과 헤어져서 집으로 돌아온 이후 다음날 아침 똑같이 학교에 간다. 학교에 가서 수업을 듣고 똑같이 야자를 한다. 마치 그 간의 일이 꿈이었던 거 처럼. 하지만 야속하게도 그 간의 일은 꿈이 아니었기에, 무명의 머릿속에서 계속 생각이 난다. 무명은 다시 그 사람과 만나기 전에 (자신은 모르겠지만) 자신이 발전하기 위한 생각을 다 마친다. 그리고 나서 그 사람과 다시 만난 무명은 그 사람이 실존하지 않는 사람이었다는 것은 당연히 받아들이고 그런 허구의 사람을 만들어 낸 이유까지도 스스로 생각해 그 사람에게 전달한다. 그리고 마지막까지 그 사람이 해준 말을 새겨 듣고, 그 사람을 떠나보낸다.

S#19 집 가는 길 / 밤

눈이 조금씩 내리고 있다.

달은 환하게 빛나고 사람은 아무도 없다.

학교가 끝나고 무명이 집으로 걸어온다.

무명의 집 앞에 그 사람이 서 있다. 그 사람은 가만히 서서 다가오는 무명을 바라본다.

무명이가 다가와 그 사람 바로 앞에 선다.

무명 : (그 사람 앞에 잠시 서 있다가) 올 줄 알았어요.

그 사람 : (무슨 말을 해야할지 모르겠다는 듯이)

학교가.. 이제 끝났어요?

무명 : (무시하고) 당신이 실존하는 사람이 아닌 게.... 맞는 거 같아요.

그 사람 : (아무 말도 못 한다)

무명 : (숨을 고르고) 그래서.. 제가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내가 당신을 만들어 낸 거라면 어차피 당신은 또 다른 나일 텐데..
왜 굳이 다른 사람을 만들어 냈을까.. 생각을 많이 해봤는데요.
(잠시 쉬고 울먹이면서) 내가... 사람이 그리웠나 봐요.
내가.. 혼자 있기 싫었나 봐요. 외로웠나 봐요.
(쏟아내듯이) 사람이 너무 그리워서.. 없는 사람을 만들어내서라도 이해받고 싶었나 봐요.
(잠시 쉬었다가 바라보며) 비참하죠?

(Flash Back)

무명이 사람을 그리워하던 장면들이 나타난다.
바닷가에서 그 사람이 가버리자 아쉬워하던 장면,
자기와 같이 가자고 말해달라고 부탁하는 장면,
밭에서 그 사람의 말을 듣고 눈물을 흘리는 장면.

그 사람이 무명에게 다가와 무명을 꼭 끌어안는다.

무명 : (작게 흐느끼며) 저도.. 사람이 필요해요. 누가 날 좀 받아 들여줬으면 좋겠어요.

조금씩 내리고 있던 눈이 많이 오기 시작한다.

그 사람 : (품에서 무명을 떼어내고 어깨를 잡아 시선을 맞추며)
물론, 세상에 저처럼 무명씨의 생각을 다 알아주고 이해할 수 있는 사람은 없을 거예요.
하지만 무명씨를 사랑해서, 무명씨의 생각을 이해하려고 노력하는 사람은 있을 거예요.
(강하게) 그 마음이 제일 중요하다는 건 무명씨도 알잖아요.
무명씨가 그런 사람을 찾고 싶고, 그런 사람과 함께 하고 싶다면 자신을 보여주면 돼요. 무명씨의 생
각을 공유해요. 가만히 있지 말고 먼저 다가가요.
무명씨는 이해받을 수 있어요. 사람들과 함께 살아갈 수 있어요.

그 사람을 바라보는 무명의 눈에서 눈물이 계속 흘러내린다.

무명 : (눈물을 닦고 고개를 끄덕이며)
그렇게 해볼게요.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거예요.
(잠시 쉬고 그 사람을 계속 바라보며)
고마워요.
그러니까 이제 그만.. 가요.

눈은 펄펄 내리고 달은 빛난다.
세상이 온통 하얀색이다.

사실 이 장면들과 대사도 미리 다 생각해두었던 것들이었다. 이 장면에서 그 사람이 말하는 내용은 바로 이 영화가 전달하고 싶은 메시지 그 자체이다. ‘무서워하지 말고, 분명히 너의 생각을 사랑하고 이해하려는 마음을 가진 사람이 있을테니 먼저 다가가 마음을 열어봐.’ 그리고 또한 대사에서 얘기했듯이 자신이 만들어낸 사람은 어차피 또 다른 나 자신이다. 그래서 결국엔 무명이는 끝없는 어둠과 막연함 속에 홀로 서있는 자신을 자신의 힘과 생각으로 구출해냈다. 그 과정을 돕기 위해 잠시 그 사람을 통한 것 뿐이었다. 끝 없는 생각이 무명이를 가뒀지만 그 곳에서도 멈추지 않은 생각 덕분에 탈출할 수 있었다. 그리고 다시는 갇히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영화는 끝난다.

영화의 끝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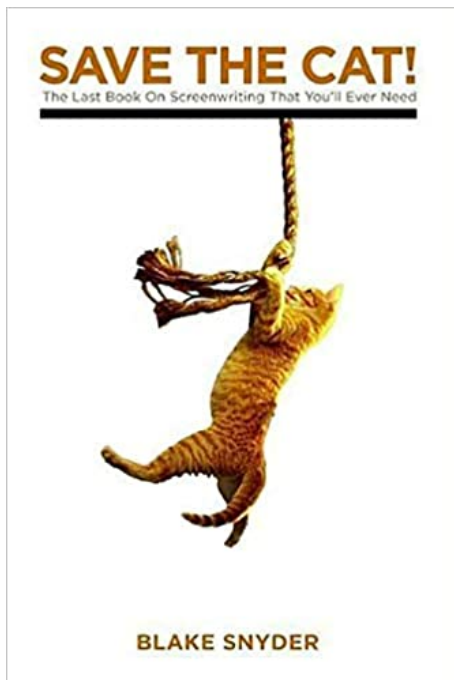
사실 마지막에는 대학에 간 무명이가 먼저 자신에게 다가 온 친구가 좋아하는 것이 무엇이나고 묻자 조금 망설이다가 자신은 겨울 냄새를 좋아한다고 말을 하는 것으로 끝이 난다. 하지만 내가 이렇게 말로 설명해도 별로 무리가 없으니 그냥 과감하게 뺐다. 결국 무명이는 마지막에 자신의 생각을 공유하는 것을 시도해 본 것이다. 주인공은 처음과 다르게 변화했다. 주인공이 마지막에 변화했다면 영화 필수 요소 중 하나 정도는 해낸 것이라고 책에서 읽었다.

그리고 이렇게 끝난 것이 해피엔딩이긴 하지만 이 장면은 무명이의 삶의 일부분의 끝을 보여준 것이기 때문에 무명이는 언젠가 다시 힘들어질 수 있다. 스스로 탈출했기에 다시는 갇히지 않을 것이라고 했지만 다시 갇힐 수도 있고 갇히는 것이 잘못된 것도 아니다. 그리고 갇힐 위기가 이것만 있는 것이 아니지 않은가. 여러가지 위기가 무명이를 찾아올거고 장담하는데, 무명이는 또 그것에 무너지듯이 힘들어 할 것이다. 그렇기 때문에 사실 해피엔딩이라고 단정 짓기에도 조금 어렵다. 게다가 난 새드엔딩을 조금 더 좋아하기 때문에 여러 가능성을 열어놓겠다. 그러니까 내가 하고 싶은 말은.. 다시 위기가 찾아올 것이고 그 위기에 휘말리는 것은 절대 잘못이 아니란 얘기다. 휘말렸다가 다시 빠져나오면 된다는 말이다.

끝내며

다 읽으셨을지 잘 모르겠다.. 너무 길고 이런 장르에 관심이 없는 분들은 너무 지루하셨을 거 같기도 하다. 하지만 난 정말 최선을 다 해서 설명한 거 같다. 내가 쓴 이 영화 시나리오가 누군가에게 감정의 변화와 공감을 일으켰으면 좋겠다. 그게 바로 내가 이 영화 시나리오를 쓴 이유이고, 내가 영화를 사랑하는 이유이다. '겨울 냄새'라는 영화 속에서 이제 막 새로운 삶을 시작한 무명이가 잘 살아갔으면 좋겠다. 이 프로젝트를 진행하면서 힘든 일도 있었고 다른 영화나 작품을 보고 오면 나의 것은 항상 초라하고 불품없게 느껴져 괴로울 때가 많았지만 언젠가는 나도 좀 더 깊이 있고 누군가에게 막대한 영향을 줄 수 있는 작품을 만들 수 있었으면 좋겠다. 그리고 요즘에는 실사영화가 아닌 어린이 애니메이션 영화에도 많은 관심이 생겼다. 내 기준으로, 내 항상 동심을 갖고 살아가는 사람이기에 어린이들을 위한 영화를 만드는 것이 굉장히 재밌고 가치가 있을 거 같다고 생각한다. 가끔 어린이 애니메이션을 볼 때 눈물이 나는데, 내가 보통 눈물을 흘리는 장면이 등장인물이 자신이 좋아하는 행동을 하며 밝게 웃을 때이다. 왜 웃고 있는 사람을 보며 나는 이렇게 슬퍼지는지 아직 잘은 모르겠지만, 그 슬픔이 나쁘지 않고 조금 더 느껴보고 싶다. 그리고 나도 행복한 상황과 장면을 만드는 사람이 되고싶다. 내가 이번에 시나리오를 써 본 '겨울 냄새'라는 영화가 누군가에게 너무나 행복해서 너무나 슬펐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해본다. 밤이 깊어가니 아무말이나 끄적이는 거 같아 이만 줄이겠다. 시나리오를 쓴 과정은 뒤에 적어놓도록 하겠다. 감사합니다.

과정



SAVE THE CAT!

이 책의 내용을 읽고 노선에 정리했지만 이 책의 내용을 그대로 따라가기만 하면 마음에 드는 결과물이 나오지 않을 거 같았기에 참고하고 싶은 몇몇 부분만 골라서 실행해 봤다. 이 책이 도움이 정말 많이 됐다. 이 책을 읽지 않았으면 아마 시나리오 쓰기는 또 실패했을 것이다.

로그라인

운둔형 외톨이가 겨울 냄새 맡으러 떠났다가 정체 모를 사람을 만나 자신의 마음 속에 있던 감정을 마주한다.

제목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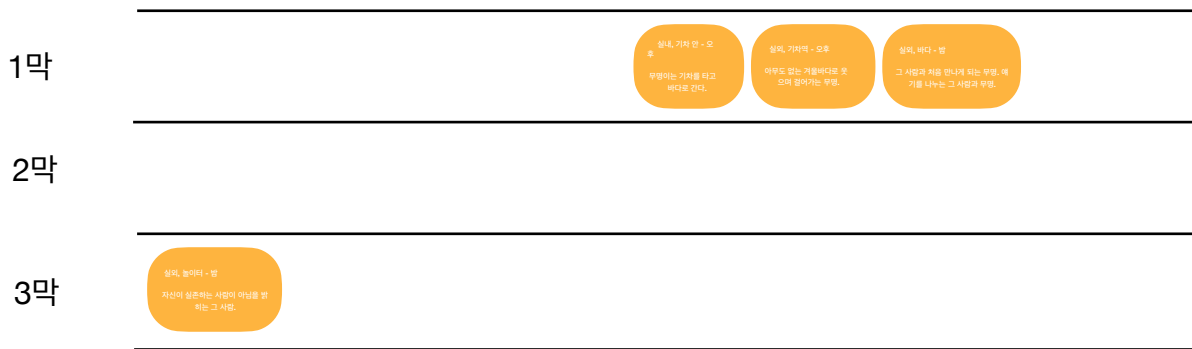
겨울 냄새 (가제)

장르

통과 의례

로그라인과 제목, 장르를 정해보았다. 장르에 대해 잠시 설명하자면, 흔히 이 장르에서 주인공을 공격하는 '괴물'이라는 것은 대개 눈에 보이지 않으며 모호하고 이름 붙일 수도 없는 무언가이다. 결국 궁지에 몰린 주인공이 괴물을 직면하고 정체를 깨닫고 인정하게 되는 과정을 그리는 영화이다.

다음은 스토리보드를 써보기 시작했다. 책에서 스토리 보드는 그냥 글씨를 지우거나 포스트잇을 떼어버리면 되니 마음 편하게 쓰라고 해서 정말 마음 편하게 썼다. 보통 소재를 떠올리고 그 다음으로 가장 먼저 떠올리는 것인 핵심 장면을 집어넣었다. 이 핵심 장면은 내가 이 것을 영화화하고 싶은 아주 크고 거대한 하나의 이유이기도 하다. 나에게 핵심 장면은 이것들이었다. 주인공이 처음 여행을 떠나 암울하고 넓은 바다에 앉아 정체 모를 그 사람을 처음 만나는 장면, 그리고 그 사람이 주인공에게 자신이 실존하지 않는 인물이라고 털어놓는 장면. 이 두 개의 장면이었다. 그래서 나의 초반 스토리보드는 아래와 같았다. 각각 대충 초반부와 후반부에 들어갈 것이라 예상하고 아래와 같이 포스트잇을 배치했다.



다음은 솔직히 별 거 없다. 설정을 추가하고 장면 설명을 풍부하게 만들며 계속 창작해 나가면 된다. 계속 이야기를 써나가면 된다. 이 스토리보드는 연출 기법이나 아주 자세한 내용을 적는 곳은 아니다. 그냥 이 장면 다음엔 어떤 장면이 오는지, 오직 그것만 설명하면 될 뿐이다. 하지만 사람 머리가 막막 나서서 먼저 생각한다. 아 이 때는 이런 연출을 했으면 좋겠어 등등 어디서 본 건 있어서 온갖걸 생각한다. 그래서 난 나의 머릿속 생각을 존중해주기 위해, 그리고 그런 잡탕 속에 빛을 발하는 좋은 생각이 항상 있었기에 일단 생각나는 것들을 모두 다 하나도 빠짐없이 적었다. 이 것은 절대 쉬운 일이 아니었다. 생각은 노력을 동반하지 않기 때문에 난 정말 숨쉬듯이 생각했다. 숨 한번에 생각 한번. 정말 징글징글하다. 아 정말 이 때는 머리를 없애버리고 싶었다. 어쨌든 난.. 노력했다. 최대한 많이 적어서 미래에 나에게 전달해주려고 했다. 빼놓은 것도 있겠지만 거의 다 적었다고 생각한다. 그렇게 깨질 거 같은 머릿속에서 최소한의 스토리보드에 들어가야 할 것들 만을 적어나갔다. 장면을 계속 이어붙였다.

아 그리고 난 이 스토리보드를 쓴 것이 정말 잘했다고 생각하는데 그 이유는 바로 ‘블랙홀’ 때문이다. 블랙홀이란 장면과 장면 사이를 어떤 장면으로 연결해야 할지 모르는 그런 상황이다. 생각해 놓은 장면들은 많은데 그 장면들을 이을 장면들은 모르는 그러한 상황이 온다. 저번 시나리오를 작성할 땐 이 것 때문에 스트레스를 정말 많이 받았다. 블랙홀을 해결하기 위해 넣는 장면 하나가 영화 전체를 흔들어 버리기도 하기 때문이다. 저번 모듈에 나는 시나리오를 쓰며 항상 블랙홀을 마주했고 그럴 때 마다 전부 다 다시 세심하게 수정해야만 해서 머리가 터질 거 같았다. 하지만 이 스토리보드를 쓰는 단계에서 블랙홀을 미리 마주한 나는 그냥 포스트잇 하나를 손가락 두개를 이용하여 휙 붙이고 휙 날려버리면 됐다. 이 단계에선 어떤 장면을 넣거나 빼는게 큰 일이 아니었다. 그 것은 종이 한 장에 불과했기에 난 쉽게 그것을 바꿀 수 있었고 그래서 더 자유롭게 생각했다.

[illegible]

시나리오를 쓰기 전에 시놉시스를 먼저 썼다.

달림선생님 : (귀찮다는 듯이) 사실 이 만화는 중심한 잘 익숙한 어떤 존재론 다 쓸 수 있어.
 (옆에 있는 공작 까먹지 말고 잘 외워둬.
 (잠시 책을 돌려다 보다가) 그러고 일단 존재 하나 정돈 들어올게.
 30~35~40 두 글을 찾아라. 자 이걸 그냥 인쇄하면 하면 되는 거 알겠지? ...

무명이는 계속 책을 내려본다. 나오는 양상하게 서 있고 보기만 해도 으쓱 보인다.
 놀이터에서 그대를 신나게 하고 있는 그아 아이가 보인다.
 그 아이를 보고 무명이는 잠시 고민하다 손을 크게 씌어본다.
 하지만 손을 넣어가 내지 않는다.
 고개를 돌려서 바깥에 앉아있는 같은 한 친구들을 보는 무명. 잠시 바라본다.
 그러다 그냥 자신이 한심하다는 듯이 일어서 버린다.

(종소리)

달림선생님 : 자 오늘은 여기까지 한 해라. 야자 바지에 마라.

S#4 학교 야자실 / 밤

무명이가 야자를 하고 있다.
 찢어 무언가를 끄는하다가 그냥 일어서 버린다.

(O.I)

날이 보였던 그아 아이가 생각난다.
 찢어 있던 커튼이 생각난다.

바깥 나는 듯이 눈을 감고 일들을 명그린다. 계속 생각에 난다.
 그러다 미칠나 후다툼을 꺼내 키치를 깨워한다.

(C.U)

짜잔에 프가 여인되었다는 글자가 보인다.

무명이는 갑자기 기쁘다는 듯이 어떠한 표정을 짓는다.
 지친 듯이 책을 찢을 뒤에 얹어 시작한다. 그리고는 어둠을 기어 잠을 잔다.

S#5 학교 코루실 / 오후

(다들 날이라는 자만이 쓴다)
 창 밖으로 노을이 지고 있고 무명이가 선생님 앞에 서 있다.

달림선생님 : (말할하려는 듯 어둠을 한번 열어젖히며) 미쳤나? 너 그이야.
 야자를 어떻게 해?
 무명 : (일게 웃으며) 편했어요.

달림선생님 : 왜 바지는 건데? 야자나 좀 말해봐.
 무명 : (조금 창피하다가) 음... 손을 넣었을 때요? 기어 해서요.
 달림선생님 : (어이가 없다는 듯한 표정을 지으며) 미쳤나?
 무명 : (가식적으로 웃으며) 아예 아녜요?
 (잠시 뜰 뿐이고) 그냥 잘 지냈습니다.

무명이가 코루실을 걸어나간다.

S#6 기차 안 / 오후

무명이는 기차가 좋은 생김새 기차에 타 있다.
 창밖을 바라보다 입김을 불어 그림을 그린다. 손가락으로 장난조 친다.

S#7 기차역, 바다 / 밤

기차가 서고 문이 열린다. 사람들 통 사이로 무명이가 나온다.
 바닷가에 바다가 보인다. 무명이는 크게 숨을 쉬고 팔에 웃으며 바다 쪽으로 걷는다.
 시선은 계속 바다로 고정된 채 제안을 내려간다. 바다는 잔잔하고 깊다.
 모래 피를 걷다 발만 잠가버린다. 다시 숨을 크게 친다. 웃는다.
 그리고는 주변을 한 번 둘러본다. 아무도 없다는 걸 확인한다.
 가방을 열어 안에 두고 프레스장에 누워버린다.
 발가락이 떠 있는 걸이 보인다. 걸이 아주 많다.
 무명이는 한숨을 누워있는다.

무명 : (웃으며) 좋다...
 그 사람 : 그걸요? 잘 꾸려

무명이가 놀란 듯이 후다한 일어나 않는다. 그 사람을 한히 쳐다본다.
 잠잠한 코루실 같은 만일여의치 사람이 앞에 서 있다.

그 사람 : (바다 쪽을 보며) 말이 참 많아요. 손을 넣어도 전하고

무명 : (당황하며) 네..?

그 사람 : (다시 무명을 보며) 손을 넣을 때요? 손 거 아니려요?

무명 : 네.. 잠깐 한여요.

그 사람 : (무명이 옆에 앉으며) 제로 손을 넣을 때요? 잘 봤어요

무명 : (실력 거리를 두며) 아... 네...

그 사람은 다시 바다 쪽을 쳐다본다. 무명이로 다시 앞 쪽을 본다.
 무명이는 어쨌든 듯이 계속 그 사람을 멀어질한다.

무명 : (말할려는 듯이) 음... 언제 가세요?

그 사람 : 왜요? 제가 갔으면 좋겠어요?

무명 : (순서대로 치며 황급히) 아니요 아니요...

마지막으로 시나리오를 썼다.

끝.

